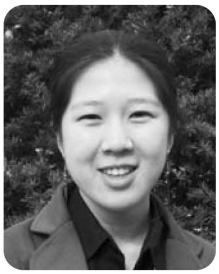
학 / 생 / 제 / 언

# 대학에서 보낸 나의 첫 1년

■ **공유진** (인문계열)

## 대학공부에서 느끼는 즐거움



'이제는 나도 대학생'이라며 벅찬 가슴을 안고 입학하던 날이 또렷한데, 벌써 일학년이 끝나가고 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일 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공부에 대한 태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대학에 오기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변함없는 '학생'이지만, 학생의 본업인 공부를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은 크게 달라진 것이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는 단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했지만 속에는 늘 압박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좋은 대학을 가려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당연하지만 어떻게든 회피하고 싶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공부는 부담스러운 대상이었고, 내가 했던 공부는 그저 입시만을 위한 공부일 뿐이었다.

그렇지만 대학생이 된 지금, 나는 스스로 하는 공부의 즐거움을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 같다. 다른 무언가가 아닌, 학문 그 자체에 대한 흥미라고 해야 할까? 꼭 배워보고 싶었던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하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공부, 그것이야말로 바로 진짜 공부라는 사실을 서서히 알아가고 있는 것이다. 애초부터 정해져 나왔던 그 동안의 시간표와는 달리, 내가 좋아하는 과목들로 시간표를 짜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기쁘고 뿌듯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공부에서 느끼는 즐거움이란 자율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대학에도 시험과 과제가 있고, 따라서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그렇지만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생각을 전개시킬 수 있다는 것은 분명 기쁜 일이다. 수업을 들으면서 '아, 이 과목은 정말 재밌는 것 같아'라든지, 혹은 (조금 과장해서) '이거야말로 내가 해야 할 학문인데'라고 생각할 때면 스스로 대견함을 느끼기도 한다.

물론 공부는 끝이 보이는 것이 아니며,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익히 들어 알고 있다. 아는 것이 턱없이 부족한 나에게, 갈 길이 한참 많이 남았다는 사실도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대학에 와서 처음 느낀 공부의 즐거움만큼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계속되는 시험과 과제에 지칠 때에도 초심을 간직해 나가고 싶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 배움의 과정을 통해 내 삶과 나를 둘러싼 세계를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공부는 충분히 뿌듯한 일일 것이다.

2007학년도 학사일정도 이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연말은 누구에게나 뜻 깊겠지만, 처음으로 맞이한 대학생활로 2007년을 보낸 신입생들의 감회는 더욱 새로울 것입니다. 이번 〈열린지성〉에서는 새롭게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1년을 마무리 짓게 된 07학번 학생들의 목소리로 꾸며보았습니다.

■ **윤지인** (공대 기계항공공학부)

## 전공수업의 즐거움, 그러나 실망스러웠던 기초과목

나는 지금 공과대학에서의 두 번째 학기를 맞이하고 있다. 고등학교 때 최선을 다하는 분야에서 적절한 성취도를 얻는 것, 그럼으로써 나의 꿈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학업적 즐거움으로 삼았다면 지금은 전공과목을 이수하며 스스로의 전공에 대한 자부심이 나의 학업적 즐거움이며 매일 매일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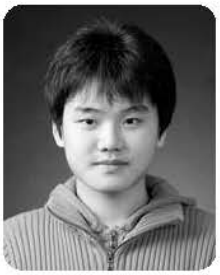
대학생활은 내게 큰 즐거움을 안겨 준 한편, 적잖은 실망 또한 안겨주었다. 특히 입학하고 나서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감의 저하였다. 내가 속한 집단이 변한 후로, 나는 달라진 나의 위치에 적응하며 상당량의 자신감과 자존감(Self Respect)을 잃어버렸다. 친구들을 바라보며 어쩔 수 없이 나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왠지 뒤쳐진 것 같은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는 위치라는 것은, 고등학교 때 겪어본 일이 없어서 더욱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두 번째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전공과목 외에 몇몇 '학문의 기초' 영역의 강의에 대한 실망이다. 나는 수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같은 교재를 사용하는 MIT대학의 동영상 강의를 보곤 한다. 거의 비슷한 인원이 수업을 듣는데도 학생들의 참여도라든가 교수님의 자세, 수업의 구성이 매우 달랐다. MIT의 동영상 강의의 경우 수업은 교재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의 실제적 증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때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반면 내가 수강한 일부 강의의 경우 증명은 항상 칠판의 2차원 평면 안에서 이루어졌다. 학생의 참여도도, 학생과 교수님 간의 소통도 MIT대학의 동영상 강의에서보다 크게 떨어졌다. 또한 MIT의 동영상 강의의 경우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스크린 너머로까지 느껴지는 한편, 내가 수강한 일부 강의의 경우 이해의 몫은 전적으로 학생들의 책임으로 맡기신 채 단순히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고 나가시는 교수님이 계셨다. 고등학교 때 까지만 해도 가장 흥미로운 과목이었던 과학이 단순하고 평면적인 학문이 되었을 때, 나는 무척 슬플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공과 대학의 부담스러운 학사과정이다. 1학년에게 추천되는 학점은 17학점 내지는 18학점이지만 이를 충실히 수강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자신이 수강하는 강의에 충실하면서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한 과목, 심지어는 두세 과목을 도중에 취소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고도 거의 매주 과제와 시험, 보고서와 프로젝트에 시달린다. 이 때문에 학업 외의 취미생활은 꿈도 못 꾼다. 공과대학의 친구들 중에서는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하고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동아리 활동과 학업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경우는, 내가 아는 한 극소수이다. 학생으로서 학업에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학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할 자유, 특히 폭넓고 다양한 대인관계 및 사회경험의 기회가 타 단과대학에 비해 극히 제한적인 듯하여 아쉬울 따름이다.

■ 윤현수 (법대)

##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했던 교양수업들



대학에서의 교양수업은 전공 외에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해 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학문에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나의 경우, 단지 전공을 위한 기초소양을 쌓기 위해서 교양 강좌를 수강한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나에게는 큰 매력이었다.

아무래도 교양 과목은 그 분야에 대한 입문 과정에 해당하고, 수강생들도 해당 분야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교수님들의 기대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듯하다. 그러나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수님들은 어떤 모범답안보다는 창의적인 사고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고, 학생들은 그만큼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다.

대학국어 수업에서는 여러 차례 글을 쓰거나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교수님이 원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없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하는 데에만 중점을 둘 수 있었다. 역시 1학기때 수강한 철학 수업에서도,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듯 보이는 주장을 비록 미숙하지만 당당하게 글로 써 냈던 기억이 난다. 2학기의 문학 강좌에서는 교수님이 무엇보다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셨고, 자연과학 강좌에서도 복잡한 수식보다는 이 세계의 작동 원리와 그 신비로움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2학기가 되어 처음으로 전공 수업도 수강하게 되었지만, 아직은 부담도 없고 자유로운 교양 과목이 더 재미있게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2학년이 되어서도, 전공 공부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듣고 싶은 강의를 찾아 마음껏 들어보려고 한다.

■ 송주현 (생활대 소비자아동학부)

## 신입생 세미나, 그리고 UNO를 통한 배움의 기회

1학기에 듣게 된 정운찬 교수님의 신입생 세미나는 나에게 수업 그 이상이었다. 세미나를 통해 존경하는 교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고 세미나 동기들로 구성된 UNO도 알게 되었다(지금은 세미나 수강여부에 관계없이 모집하고 있다). 처음에는 신입생 멘토링 동아리라는 다소 막연한 소개를 듣고 주저했지만 후에 이어진 선배님들과의 점심식사는 이내 내 생각이 어리석었음을 느끼게 했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중앙동아리에서 소속감을 느끼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UNO는 나에게 또 하나의 가족처럼 편하게 다가왔다.

신입생 멘토링 이라는 동아리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매주 열리는 독서토론과 예술 · 철학 · 과학 등의 분야에서 매번 다른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하는 멘토링 세미나는 선배님들과 동기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진지한 기회였다. 이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자기계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 대학 입학 전까지의 공부가 타인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평가받는 공부였다면, UNO에서의 세미나는 나에게서 시작하는, 나로부터의 공부였다. 나의 고민과 나의 가치를 선배님들, 동기님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열정을 키워가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UNO의 구성원들은 서로에게서 배우는 사람들이고, UNO는 그 배움의 장이다. 또한, UNO인(人)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역할을 찾아나가며 서로에게서 자신을 발견하는 능력의 소유자들이다. 서로 다른 딘과대로 구성된 UNO인들의 일곱 빛깔 열정은 내 시야를 한층 더 넓혀주었다. UNO인들은 단지 열정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열정을 행동으로써 식지 않도록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UNO에서 1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은 나에게 가슴 벅찬 행운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확신한다.

■ 남율희 (자연대 수리과학부 · 통계학과군)

## 낯설음에 적응하는 시간

대학은 역시 고등학교 때까지와는 많이 달랐다. 수강신청, 강의식 수업, 레포트와 시험 등 대학교에서는 배우는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었다. 또한 각종 행정 처리를 하고 e-TL을 사용해보고, 몇몇 행사와 특강 등에 참여해보면서, 이제부터는 공부 이외의 모든 행정적 문제들과 그 외의 선택들도 스스로 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런 다양한 낯설음이 첫 학기의 나에게 큰 짐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뭔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런 기분, 아직 미약하기만 한 서울대에서의 소속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험의 부족..... 2학기에 와서야 비로소 어느 정도 나의 생활을 능동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

올 해에는 전공과목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양과목만을 수강하였다. 그렇지만 수학 및 연습, 물리학 1 · 2, 통계학 등은 어차피 들어야 하는 과목이며 이과계열 과목이기 때문에 교양이란 느낌이 별로 와닿지 않았다. 그 밖의 과목에서는 1학기에는 대학국어가, 2학기에는 동양의 고전이 내게 인상 깊은 교양과목으로 다가왔다. 대학국어 수업에서는 주석달기, 논문 검색하기, 소논문 쓰기 등의 전문적인 글과 관련된 지식을 배울 수 있던 점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만 개인적으로 한자를 잘 못 외워서 한자시험이 다가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다. 동양의 고전 수업에서는 주로 논어를 다루며 다양한 관점에서 읽기의 방법들을 배워나갔다. 수준 높은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시험 대신 자주 레포트를 쓰며 배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고, 동시에 많은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다.

내년부터는 전공과목을 수강할 것이다. 공부해보고 싶은 것이 참 많다. 오늘을 열심히 살며 내일을 기대하는 내가 되고 싶다.

■ 양준용 (사회과학계열)

## 전공진입으로 인한 부담

나의 첫 대학 1년간, 대학이 왜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불리는지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스스로 정하는 강의 시간표는 학생의 학습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전공진입은 수강신청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듣고 싶은 과목을 듣기에는 학점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다.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철학과 등의 강의들을 들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수강신청 기간마다 선배들과 동기들의 조언을 통해 학점을 '뿌리는' 강의들을 미리 찾고 있는 나의 모습은 일견 처량하기까지 했다.

난지 학점 부담만이 아니다. 의무수강과목의 존재 역시 내가 원하는 강의를 수강하는데 방해가 되었다. 사회과학계열 학부생은 전공진입을 위해 전공탐색과목 세 과목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또한 1학년 신입생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필수강의인 대학국어와 핵심교양 세 과목을 들어야 하는 것 역시 상당한 부담이다. 1학년의 전공진입 필수 학점인 27학점 중 전공탐색과 핵심교양, 대학국어를 빼면 6학점이 남는다. 이것이 과연 내가 배우고 싶은 공부를 도와주는 대학의 모습인지 의심스럽다.

학생은 대학교에서 원하는 것을 공부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를 원한다. 사회과학대학이 학부제로 바뀐 이유는 1학년 학생들이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폭넓게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전공진입과 의무수강제한은 그런 취지의 실현을 저지하고 있다. 과연 학생들의 요구가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을 통해 전공진입의 문제를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